

#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특특히 보여주는데 정치적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수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작공의 첫 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

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철벽로 원수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통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려명거리를 올때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참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제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회세의 천출명장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기 운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휘로운 앞날에 대한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백두의 칼바람마냥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이 불변의 진리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레인 세인 만마면방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세네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김일성김정일김

리사회 공동리사장,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사회적발전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병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할 줄을 아시였다.

선군시대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할 신의주시직관선진사 당새포비서 조귀남은 대중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직관선진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인민군대원호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섬으로써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천만군민을 투철한 반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할 열의밑에 계급교양지도국 산하단위 부원 김세준은 중앙계급교양반공수장에서 건설자들과 승결을 같이 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해당화교류사 로동자 육원경은 반계급교양 의 열도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차례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계급교양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였다.

조선국제여행사 안내부원 한금복, 류경건설관리국 산하단위 통역원 김민희도 혁명적기상이 나타내는 전투현장에서 경제선동도 하고 건설자들에게 많은 자재도 넘겨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뜨거운 혁명적동지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닌 평양시구급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하지 않게 화상당한 환부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

주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려 그들을 다시 혁명초소에 세우는 소행을 발휘 하였다.

황해북도인민병원 책임의사 김명월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으로 수십년간 치료사업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되찾아주고 환자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에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